

三顧草廬의 至誠

—司書職待遇改善을 위하여—

李 鍾 禧

(交通公務員教育院圖書館長)

圖書館法の 疎外地帶

圖書館法 第4條에 보면 “特殊圖書館과 그 設立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或 特別한 規定이 있는가 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特別한 規定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特殊圖書館分野는 法の 規制도 받지 않으려니와 同時에 法の 保護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即, 다시 말해서 國家의 文教政策 테두리 밖에 있는 實情입니다.

于先 第一次의 問題點이 여기에 있습니다.

果然 特殊圖書館들은 圖書館社會에서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常識 밖의 運營을 해도 пен찮겠느냐 하는 問題가 提起됩니다.

특히 正司書 乃至 準司書 등 司書資格을 가진 者(法的으로 圖書館 專門職임이 認定된 有資格者)와 特殊圖書館과의 사이에는 何等 關聯이 圖書館法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點은 큰 缺陷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圖書館 職員에 대한 生活給의 支給問題도 司書職 特殊手當이라는 名目으로 別途로 制度面에 反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3月 初旬頃 京鄉新聞紙上에 發表된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 圖書館界에서 文教部를 通하여 總務處에 要求한 司書職手當 支給案이 否決됨을 契機로 京鄉新聞에서 이 問題를 取扱한 일이 있습니다.

學藝職과 編史職 및 司書職에 대한 手當支給案이 否決된 것은 國家의 文化財를 保存·管理해야 할 要員들에 대한 큰 威脅이며 이들의 士氣에 큰 打擊을 줄 것이다 라는 內容이었읍니다.

率直히 말해서 淸寒과 誠實만이 強要되는 이 職種들에게 國家의 特別한 保護政策이 없다면 그 어느 누가 이 職種을 찾아들어 平生을 바칠 것인가 말입니다.

子女들의 教育은 且置하더라도 하루 세 배의 끼니마

저 威脅을 받아야 할 이들을 國家는 끝끝내 도른채 外面해버리면 그만이란 말이겠습니까.

圖書館進運을 위한 人材의 確保란 한낱 헛口號에 그칠뿐만 아니라 焉敢生心 말도 못낼 處地가 아닐 수 없습니다.

本人은 오히려 餘他的 어떠한 些少한 問題의 未備點을 꼬집어 들고 나와서 여기서 구차스럽게 그 可否를 가리고 是非를 論難해 보았던들 이 問題의 解決이 없이는 圖書館界의 앞날은 舊態依然하게 百年河淸을 기다리는 暗澹 그것이 아닐 수 없다고 斷言하는 것입니다.

人材確保

그렇다면 어떻게 하던 圖書館職員들의 待遇를 改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問題의 焦點이 되겠습니다.

모든 圖書館人들은 무엇보다도 第一 먼저 이 問題解決을 위해서 團合하고 鬪爭해야 하겠습니다.

이 問題만 解決되면 다른 問題는 自動的으로 이 問題에 附隨해서 解決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人事問題만 하더라도 待遇만 좋다면 社會의 엘리트들이 서로 다투어 圖書館人이 되려고 애쓸 것입니다.

어느 事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事業이 發展하는 것은 豫算의 뒷받침과 人事만 제대로 되면 거의 다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고 人材가 없으면 그 事業은 終端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例로 오늘 이 大會의 主管者인 中央日報만 하더라도 三星財閥이라는 그 巨創한 金庫의 뒷받침이 있으므로 해서 發刊된지 日淺한 現在에 벌써 國內一流紙로서 自他가 共認하는 華麗한 聲價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問題는 極히 簡單합니다.

오늘날 專門職으로서 堂堂한 法曹人이나 醫師들도 이 資格만 獲得하는 날이면 自身의 生活問題는 勿論이려니와 社會에서 尊待 받는 地位에 서게 되기 때문에 衆

인의 羨望의 對象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同時에 優秀한 人材들이 모두 이 關門을 노리고 熾烈한 競爭을 벌이기도 하는 것일 것입니다.

微妙한 感情의 線

우리 既成 圖書館人들도 自己向上을 위해서 不斷한 努力이 즐거차게 繼續되어야 하겠지만 圖書館 앞날의 眞正한 繁榮을 꾀하려면 圖書館人들에 대한 報酬의 增額이 一般社會에서 公認되도록 充分한 PR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 PR은 圖書館業務의 專門性이니 技術性이니 하는 것이 主軸이 되어서 企圖될 것이 아니라 率直淡泊하게 圖書館人들이 同情 받아야 할 모든 要件들이 基幹이 되어서 社會의 聲援이 이에 重厚하게 背景되도록 形成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 自身 어려서부터 圖書館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느껴온 사람의 하나이지만 事實 오늘날에 있어서 圖書館의 必要性에 대해서 反撥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圖書館이 이 江山의 坊坊曲曲에 세워져야 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같이 先進國들에 못지않게 充實하고 現代化된 施設과 運營方式에 의해서 營爲되길 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만치 그 當爲性이 認定되고, 또한 熱望되는 이 事業이 自體發展을 위해서 當事者들이 몸부림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쭙어서 그 順調로운 發展에 沮害되는 要素가 끼어 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圖書館人들이 努力하고 애쓰는 그 바라는 바 核心이 좀 더 뚜렷하게 強烈한 印象으로 相對方의 心中을 움직이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事實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否決된 司書職手當 支給案件만 해도 그 必要性이 具體적으로 날날이 잘 說明되어서 總務處 當路者들에게 깊은 印象을 주어서 이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일을 마무리려고 애만 썼더라면 그렇게 虛無하게 白紙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研究職手當이 月 萬원씩이나 策定通過되는 마당에 우리 司書職手當이라고 通過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純全히 우리 圖書館人의 說得力 不足에다 人間關係의 缺乏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國際舞臺의 어마 어마한 外交折衝에 있어서도 그 表面에 나타나는 形式外交보다는 좀 더 親密한 人間關係의 紐帶形成과 그 多樣한 幕後交涉의 誠意如何로써 大部分의 重大問題가 左右된다는 것은 우리가 歷史를 통

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目的과 趣旨에 重大한 蹉跌이 없는 限 오로지 그 成·不成의 責任은 說得力과 人間關係의 不足에다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한 마디에 千兩 빛을 갠다는 俗諺도 있습니다만 人間이란 참으로 微妙한 感情으로 얽혀 있는 動物입니다.

瞬間 瞬間의 氣分如何에 따라서 붓대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슬 아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意味로만 생각할 性質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日常生活도 勿論 그렇겠지만 古今의 歷史上 모든 일들이 그 內面을 알고 보면 이 微妙한 感情의 線이 어떻게 얽히느냐에 따라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收拾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三顧草廬의 至誠은 終은 그 도도하기 그지없던 孔明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劉備의 所信과 그 精誠은 우리들의 좋은 龜鑑이 아닐 수 없습니다.

當路者들이나 社會의 同情에 呼訴할 수 밖에 없는 이 手當問題類의 解決은 특히 이 信念과 精誠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갈지않은 專門性이나 技術性을 내세울게 아니라 좀 더 互視的인 眼目에서 文化나 學問守護라는 信念 위에 至極한 精誠의 힘으로써 相對方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現代社會의 어느 分野 처놓고 그 專門性과 技術性이 要求되지 않는 分野가 없습니다.

行政分野는 行政學으로, 企業分野는 經營學으로, 交通分野는 交通學으로, 圖書館分野는 圖書館學으로 다 각기 그 特殊한 專門性과 技術性이 要求되며 또한 漸次深化되고 高度化해 가고 있습니다.

서투른 專門職을 내세우고 當路者를 說得하려 해보았던들 오히려 相對方에게 說得되기가 쉽고 아니면 感情을 傷하게 하여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傳統的으로 專門職임을 認定해 오고 있는 法官이나 醫師에 비해 司書專門職은 요새 새로 登場하게 된 新進專門職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傳統的인 專門職과 同列의 位置에 설 수 있을 程度로 그 資格具備要件의 地位를 向上시킨 後라면 모르거니와 現在로서는 過去通念의 專門職의 觀念을 가지고 司書職을 專門職이라고 固執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現在의 司書職(正司書)水準을 가지고 굳이 專門職임을 固執한다면 이 나라에 四年制大學을 나온 분들이 自己의 專攻科目分野에 就職되면 그 분들은 그대로가 다

그分野의 專門職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달리 우리 司書職에만 局限해서 別途 手當을 支給해 달라는 얘기는 都大體가 語不成說입니다.

司書職에게 特殊手當을 支給해 주어야 한다는 理由는 全然 單 角度에서 論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理由는 이미 앞에서 充分히 밝혀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서 再論하지는 않겠습니다.

要是 淸寒한 職種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社會에서 廢物이 된 人物이나 無能者들만이 모여서 圖書館이 運營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職種에게는 學藝職이나 編史職類와 더불어 他職種에는 없는 別途手當을 支給해서 國家의 文化財를 保存·管理해야 하겠다 하는 좀 더 高踏的인 政策的인 配慮로서 이 問題는 解決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三顧草廬의 哲學

우리 特殊圖書館들은 각기 自己가 屬해 있는 그 機關의 機關長의 裁量에 의해서 報酬가 決定되는 것이겠지만 如何든 圖書館에서 일을 보는 職員들은 別途로 司書職手當이 策定支給되어야 하겠다는 原則論에 있어서 서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同一한 共通性이 于先 國家機關에 從事하는 司書職公務員들에게 制度化되어서 實施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單 機關에서도 그 機關의 形便에 따라 이에 步調를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일은 아무래도 協會側에서 主動이 되어서 앞으로 繼續 努力해 주시길 바랍니다.

勿論 文教部를 통해서 總務處關係官들에게 交涉되는 것이겠지만 協會側에서 文教部職員과 같이 直接 總務

處職員을 만나서 일이 될 때까지 꾸준히 繼續 說得에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文教部에서 書類나 한 通 만들어 가지고 總務處에 던져 놓아 가지고는 到底히 이루어질 性質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成就되기까지는 不斷한 交涉이 持續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것이 否決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書類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相對方이 納得이 갈 때까지 充分한 說明도 뒤따라야 합니다.

한번 失敗했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게 아니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될 때까지는 書類를 내고 또 쫓아 다녀야 합니다.

이것이 要領입니다. 이 以上の 秘法이 있을 수 없습니다.

三顧草廬의 哲學이야말로 秘法입니다.

그 當時의 劉備의 心情을 한번 想像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그 厚德한 人品과 그 至極한 精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圖書館人들은 相對方을 制壓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權力人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國家와 民族의 文化將來를 위해서 이를 지키고 提供하는 그야말로 奉仕만이 그의 任務인 純然한 福祉事業人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가짐은 늘 厚德해야 하고, 至誠으로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內心이 隱隱히 밖으로 풍겨서 相對方을 感動 시킴으로써 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以上 極히 平凡한 저의 意見을 陳述함으로써 이 時問의 저의 責務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一線에서 苦悶하시는 會員 諸位의 健勝을 비웁니다.

本會는 創立한 以來 會員 諸位의 꾸준한 協助와 鞭撻로 落後된 우리 圖書館界의 發展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同慶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本會의 財源은 國庫補助와 會費이온 바 國庫補助는 當局에서 指定 承認하여준 事業費補助이며 自體事業費와 經常費는 會費로써 充當됩니다. 지난 第 14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總 18種의 事業을 成功裡에 完遂하고,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려는 共同 努力에 會員諸位의 格別한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事情이 있을 줄 思料되오나 早速한 時日內에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小額이오나 個人會費의 納入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